

# 한가위만 같아라? ...근로자들 “남의 말”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 153건 18억여원 아직 미해결 지역 특성상 제조업 분야 심해 “명절인데 가족들 볼 낫 없어”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정을 봐달란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여기까지 왔네요. 곧 명절인데 가족들을 볼 낫이 없습니다.”  
광주 동구 한 학원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A(33)씨는 한차례 임금체불을 겪은 후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5개월의 임금이 밀린 이후 2개월 분이 정산됐지만 남은 3개월 분 임금은 감감무소식이다. A씨는 “지난 8월초 2개월 분을 받긴 했지만 남은 3개월분을 언제 줄지 모르겠다”며 “매달 25일 학원비 납부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월급은 밀리고있다. 이대로 관두고 나오고싶은 심정이 굴뚝같지만 명절을 앞

두고 있어 한푼이라도 아쉬워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노동청에 아직 진정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굴삭기 기사 B(49)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5~6월 사이 복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그도 현재까지 장비운용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장비운용대금이 밀리는 건 공사 현장에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관행처럼 퍼져있는 것 같다”며 “이뿐만 아니라 장비를 운용한 기사에 대한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텐데 사측에서는 대금을 피하거나 묵묵부답이다. 우리를 쓰는 비용이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여전히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 적게는 한달부터 많게는 수개월까지 임금체불 발생 신고건수

와 체불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신고는 4천626건, 금액은 306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153건, 18억여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신고건수는 4천925건, 금액은 1천억여원이었다. 이 기간에 특히 체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호타이어가 골드스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 650억여원이 한꺼번에 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임금체불 건수나 액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노동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고건수나 액수는 2017년 동기기간보다 각각 698건, 101억여원이 증가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소액 규모 임금체불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천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된다. 기동반은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해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ty2578@srb.co.kr

# 수영장서 점프 입수하다 부상 법원 “광주시가 손해 배상해야”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약대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광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오연수 판사는 4일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배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와 보험사는 연대해 A씨에게 2천7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건물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2014년 7월27일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됐다. 오 판사는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광주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대기자 wordflow@srb.co.kr

# 日 대표 인권작가 “5·18 기록물 기증”

### 도미야마 다에코씨, 시에 전달 위안부·민주화운동 작품 다뤄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한국의 군부 독재 문제를 작품으로 다뤄 온 대표적인 인권작가가 자신이 소장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기증하기로 했다. 4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일본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97)씨가 자신이 보유한 기록물을 광주시에 기증한다는 뜻을 평소 친분이 있는 도쿄대 마나베 유코 교수를 통해 전달했다.  
다에코 작가는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및 박정희 정권 당시 양심수 구원 문제를 소재로 작품활동을 해 왔다.  
과거 한차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을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한 바 있다고 기록관측은 설명했다. 다에코 작가는 1980년 6월께 일

본에서 5·18관련 보도를 접한 후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작품을 제작했고 향후 관련 행사를 알리는 팸플릿에도 작품이 무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다에코 작가는 작품을 제작할 당시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북과 작품이 담긴 팸플릿, 뉴스 기사 등을 기록관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은 다에코 작가가 노환과 부상으로 내한하지 못하는 만큼 오는 21일과 22일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다에코 작가를 찾아가 영상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받는 작품은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회 콘텐츠로 활용된다.  
기록관 관계자는 “다에코 작가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작품활동을 해 왔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제공해 온 인권작가다”고 설명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이번엔 취업하자” ‘2019 광주 북구 일자리 매칭데이’가 4일 오전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임정욱기자 jo5605@srb.co.kr

# 옹벽 위 나무 쓰러져 차량 파손

옹벽 위에 심어진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다.  
광주 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30분께 북구 운안동 한 아파트 단지 내 2.5m 높이 옹벽 위에 심어져 있던 나무 한그루가 쓰러졌다. 이 나무는 쓰러지면서 옹벽 아래에 주차된 아파트 주민 차량 두대를 덮쳤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일부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러진 나무 가지를 치우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지점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자른 흔적은 없었다”며 “알 수 없는 원인 탓에 자연적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ty2578@srb.co.kr

# 층간소음 시비로 흥기 위협 3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아래층 주민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흥기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이날 부모님 집을 방문한 A씨는 B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수차례 집을 찾아오자 다툼 끝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기아차 하남주조공장 조업 정지 약취 민원 빚발...이전 검토 중

광산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주조공장이 약취 문제로 가동을 중단했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산구로부터 약취오염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하남주조공장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조업 정지가 유지된다.  
하남주조공장은 이전부터 약취 관련 집단 민

원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 신고대상 약취 배출시설로 지정됐다.  
조업정지에 따라 기아차는 하남주조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하남주조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현대자동차 일부 차종에만 들어가는 엔진부품으로, 규모와 중요도면에서 낮아 이 지역에 둘 필요성이 적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시설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약취가 날 수밖에 없어 내부적으로 이전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 SK공인중개사

H. 010-5099-2400  
H. 010-9466-3400

#### 농성동 SK VIEW

매매, 전·월세 상/담/환/영  
물건 다량 보유  
9월 16일 입주

농성동 SK뷰 단지내 상가 107호 입점  
H. 010-8524-3150  
농성 탐 ▶ 공인중개사

### 사랑방 부동산

MAP+ (맵플러스)  
OPEN

이전 지도검색으로  
내집마련 할지!

31평 381년

- ▶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검색
- ▶ 중등학교 배정구역 확인
- ▶ 가건변동등 신고
- ▶ 중개사무소 위치
- ▶ 단지별 시세 리뷰 제공

### 광주 정보량 1위 상가·부동산광고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 ✓ 압도적인 정보량
- ✓ 관련 면 단독 게재
- ✓ 신문 게재시 인터넷·모바일 동시게재

박스광고 문인 ₩ 510-4500

상가·부동산 광고는 역시 사랑방

### 봉선동 상가 임대·분양

◆ KJ빌딩 신규 파격 임대·분양 ◆

- 지 하 체육관 / 헬스클럽 스크린 골프 / 기타 업종
- 1층 모든 업종 가능
- 2층 전문병원 / 학원 (병원 상담시 특별혜택)
- 3~6층 병원 / 타업종 가능

상담 문의 H. 010-6705-6267  
H. 010-3632-2401

### 광추최초 동영상 서비스

## 아파트 분양정보

### 찾을 땐 사랑방

- ▶ **광주 최초!** 단지 규모와 주변 환경 등 놓쳐서는 안될 주요 정보를 영상 리포트로 확인해 보세요.
- ▶ **국내 최초!**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360° 드론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
- ▶ **생생한 현장감!** 모델하우스 방문 없이 가실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세요.